



싱가포르의 교육제도

양 승 윤 |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교수

I. 교육은 최고의 경제정책

싱가포르는 잘 사는 작은 도시국가이다. 국토 면적이 서울보다 약간 넓은 692.7km² (2003년 기준)이고 인구는 430만(2004년 기준)이 조금 넘는다. 중계무역항으로 성장한 이 나라는 장사를 해서 이익이 남는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라이다. 서방세계가 군사 정부를 미워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사이에 이 나라는 비밀리에 미얀마 정부와 군사장비 거래를 하였다는 루머도 나돌았고, 국내 마약 반입에 대하여 동정적인 국제여론에도 불구하고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극형에 처하고 있는 나라지만, 국토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싱가포르의 종종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의 중간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식량과 야채류 등 기본적인 일상용품부터 물과 모래까지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모든 국가정책은 일찍부터 생존전략이라는 등식을 적용해 왔다.

1965년 독립 이래 싱가포르는 전체 국민이 마시는 식수와 공업용수의 거의 전량을 말레

이시아로부터 공급받았다. 그러나 용수 공급으로 말레이시아 측의 시비가 잦아 싱가포르 정부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말라카 해협 건너편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리아우(Riau) 주로부터 싱가포르를 잇는 총 연장 480km의 해저 용수 공급용 파이프라인 건설에 나섰다. 이 나라에는 산이 없다. 모두 깎아서 바다를 메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안 매립사업은 좁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인구와 산업 배후시설 확대라는 절실한 필요성 때문에 계속되고 있다. 용수를 공급하는 말레이시아의 경우처럼 리아우 주 쪽에서도 기초자원인 모래와 자갈을 한없이 파내면 되느냐, 같이 쓰는 바다를 계속해서 잠식해 들어오면 어떡하느냐며 국제 NGO들이 시비를 걸고 있다.

물과 흙을 사들여야 하는 무자원의 나라 싱가포르의 일찍부터 국가의 생존과 번영은 '인적자원 육성'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인력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더욱이 21세기 고도의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하면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것

도 단순한 고학력의 대학교육에 의해서 정형화된 사람이 아니라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냉철한 판단력과 예리한 창의력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인적자원'이 필요해진 것이다. 싱가포르의 전임 총리 고척통(吳作棟)은 2000년 8월 독립기념일의 연설을 통해서 "모든 싱가포르의 젊은이들은 혁명가나 반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제 단순한 모방으로는 퇴조할 수밖에 없고 창의적인 교육 혁신을 통해서 국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야만 한다"고 역설하였다.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가 1998년 초 연례 정책보고를 통하여 '교육은 최고의 경제정책' 이라고 선언한 핵심 내용보다 한 발 더 앞선 것이다.

II. 국가의 동력을 키우는 인력개발 정책

싱가포르는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일 자리와 기술 수준의 불일치'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실업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국가 차원에서 인력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1998년 4월 노동부를 인력부로 확대 개편하고, 같은 해 8월 21세기 인력개발 종합계획 백서인 『Manpower 21』을 내놓았다. 국가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인력개발 문제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Manpower 21』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배경으로 정부·기업·학과와 주요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입안한 21세기 국가교육 청사진이다. 이 백서는 미래의 고도의 지식과 고도의 기술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개발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서 실업문제를 해결하

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싱가포르는 일찍부터 인적자원의 질적 고도화에 노력해 왔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출현과 함께 '창의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등장하자, 국민 개개인의 지적수준 향상과 창의력 계발, 그리고 고급두뇌 양성에 중점을 둔 교육개혁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교육의 기본 목표를 싱가포르가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의 이상에 맞추었다. 즉, 교육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을 훌륭한 시민이자 쓸모있는 국민으로 육성하여 국가발전에 기여이 참여하도록 하고, '쓸모없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민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다. 싱가포르의 교육예산은 지난 10년간 3배가 증가하여 1990년의 20억 싱가포르달러(1조 5천억 원)에서 2000년에는 60억 달러(4조 5천억 원)로 늘어났다.

싱가포르는 생존전략 차원의 외교정책으로 유명하다. 정경분리정책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을 나눌 수 있다면 어떤 나라와도 국교를 맺어 왔다. 또 다른 하나는 원칙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와 생활용수 공급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도 '하나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진다'는 원론적인 정책 때문이며,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를 경유하다 체포된 마약 운반객에게 극형을 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외교정책 이상으로 중요시하는 분야가 바로 교육과 국방이다. 야전군의 훈련캠프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공군 타격력은 동남아 최고를 자랑한다. 외교와 국방은 싱가포르의 양 날개이고 교육이 바로 그 동력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 나라의 총리나 부총리는 대개 교육부 수장을 겸하고 있다.

Ⅲ. 기초교육에 비중을 두는 교육 정책

싱가포르 정부는 생후 6개월에서 5세까지의 학령미달 아동을 상대로 하는 유아교육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아동의 거의 100%가 거치는 유아교육은 유치원이나 보육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이들 유아교육기관은 대부분이 사립인데, 국가로부터 운영비의 거의 전액을 지원받는다. 다만 교육내용과 운영을 정부가 감독한다. 교육연한은 1~3년인데 3세까지는 보육(탁아), 4세와 5세는 각각 유치원 1년과 2년생이다. 유치원 과정을 마치면 학령아동(6세)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정부의 조기교육정책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4시간씩 행해지는 유아교육에서도 언어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과정도 영어가 중심이 되나, 만다린어·말레이어·타밀어 등 출신 종족별 고유 언어 훈련에도 비중을 둔다. 만다린(Mandarin)어는 베이징(Beijing)을 중심으로 쓰이는 표준 중국어이며, 말레이어는 말레이 종족들이 광범위하게 쓰는 언어이고, 타밀(Tamil)어는 싱가포르 거주 인도인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인도 남부에 거주하는 타밀 사람들의 언어이다. 이밖에도 공동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자제력 기르기·청소·정리정돈 등과 음악과 유희 등을 통한 창조적 능력 향상을 꾀하며, 기본적인 수리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아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는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은 미래의 산업인력 수급 전망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먼저 통상산업부가 향후 5년 후의 산업인력 수급 전망을 판단하여 교육부에 보내면, 교육부는 이에 맞추어 교육과정

을 조정하고 국가 장래의 경제 여건에 적합하도록 인력을 양성해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력 수준과 일자리가 일치되어 비싼 교육 훈련을 받은 인력이 낭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Ⅳ. 경제논리에 따른 교육정책

싱가포르의 교육이 유아교육부터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의 평준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영재교육을 강조하여 교육 분야에서도 능력우선주의의 원칙을 적용하여 인재를 발굴하고, 이에 집중 투자하여 국가의 장래를 위한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되 능력 있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합당한 결과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분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 분야에서도 실적주의(Meritocracy)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리관유(李光耀)의 장남이자 고척통에 이어 싱가포르공화국의 제3대 총리에 오른 리센룽(李顯龍)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중주의·획일적 평등주의의 환상에 사로잡혀 엘리트 교육을 포기하고, 교육의 평준화를 고집한다면 국가의 열등화와 사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여 결국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국가생존 차원의 정책에 따라 모든 교육과정은 걸러내기(streaming-out)로 알려진 우열반 편성을 위한 시험 성적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급학교로 진학 예정자와 예비 취업자로 구분된다. 초등교육은 4년의 기본과정과 2년의 적응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본과정이 끝나는 4학년 말에 싱가포르의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국가에서

행하는 걸러내기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 향후 엘리트 교육과정으로 나갈 학생과 직업교육과정으로 나갈 학생이 갈라진다. 초등학교의 '걸러내기' 시험 과목은 영어·수학·제2외국어인데, 이중 언어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영어를 출신 종족어처럼, 자신의 종족어를 영어처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엘리트 코스가 보장된다.

첫 번째 걸러내기 시험 결과에 따라 3분류의 우열반 학급 편성이 이루어진다. 학급 편성 후 성적이 향상되면 물론 우수학급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두 가지 언어 구사에 문제가 없는 상위 성적의 60%가 진급하여 졸업시험(PSLE)에 합격하면 중등학교에 진학한다. 두 언어 구사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중위 성적 20%의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2년 더 다닌 후 졸업시험을 거쳐 합격자는 중등학교에, 불합격자는 직업훈련원으로 배정되어 직업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하위 20%의 중등교육이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들은 첫 번째 걸러내기 시험 후에 종족어 교육에 중점을 둔 8년간의 초등학교 교육을 마친 후 직업훈련원으로 보내져 일찍부터 직업교육을 받게 된다.

중등교육 기간은 4년인데, 초등학교 졸업시험 성적에 따라 상위 성적 6%의 특별이중언어과정(SBC)과 중위권 성적 60%의 신속이중언어과정(EBC), 그리고 나머지 하위 성적의 보통이중언어과정(NBC) 등 3단계로 분류하여 학교에 배정하고 성적 향상에 따라 코스 이동이 가능하다. 이 중 SBC나 EBC 코스 진학생들에게는 4년 후 중등학교 졸업자격시험(GCE O level)을 볼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보통이중언어과정의 진학자는 4년 과정을 마친 후 중등학교 수료시험(GCE N level)을 보아 성적 우수자는 중등학교 5학년으로 진급

하고, 성적 미달자는 직업훈련원으로 진로를 바꾸거나 취업을 하게 된다. 중등학교 5학년 수료자는 졸업자격시험(GCE O level)을 거쳐 다시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가 주어진다.

고등교육은 졸업자격시험(GCE O level) 성적 우수자는 2년제 주니어 칼리지(Junior College)에서, 성적 보통자는 3년제 폴리테크닉(Polytechnic)에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며, 성적 미달자는 직업훈련원으로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도록 유도한다. 고등교육 수료자는 졸업자격시험(GCE A level)을 거쳐 성적에 따라 3년 내지 5년 과정(의과대학)의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택하게 된다.

V. 생각하는 학교, 배우는 국가

싱가포르의 교육제도는 모두 직업교육과 직결된다. 나아가서 직업교육이 중점을 두어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일이나 직업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work ethics)'이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적성에 맞고 내 능력에 부합하며, 사회와 국가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주입시킨다. 택시 운전기사나 거리 미화원에서 호텔 중업원까지 대개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여 '평생직장·평생직업'의 개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 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계 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봉급 인센티브 제도를 즐겨 구사하지만, 중국계 기업들은 직업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우선한다. 그러므로 한국계 기업은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봉급을 지급하고도 노사분규와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21세기 기술혁명시대를 대비하여 과학교육의 질

적 향상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유아 교육 시기부터 과학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고, 초등·중등학교의 과학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1조 5천억 원 규모의 특별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과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싱가포르 중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세계 정상급으로 끌어올렸다. 1996년 전 세계의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학·과학 경시대회에서 싱가포르 학생들이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1999년 경시대회에서도 싱가포르는 수학 분야에서 1위를,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는 2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믿어진다.

싱가포르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21세기 지식산업의 변화에 걸맞는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패턴을 도입하였다. 1997년부터 '생각하는 학교(Thinking Schools)와 배우는 국가(Learning Nation)'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학업 성적보다는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창의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이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1999년부터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수업 시간을 전체적으로 10% 내지 30%를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학생들은 여유 시간을 미술·음악·체육 등 예체능 교과목과 야외탐사·작문·사진촬영 등 다양한 클럽활동 참가로 보내고 있다. 수업 방식도 기존 교사들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으로부터 학생들 각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3~5명씩 조를 이루어 팀워크(team-work)를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에도 지금까지는 우수한 학업 성적이 유일

한 기준이었으나, 2002년부터는 미국식의 수학적성시험(SAT) 성적·프로젝트 성취도·과외활동 실적 등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Ⅶ. 세계 수준의 대학교육

국가경쟁력 세계 1위 자리를 놓고 미국과 다투는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일찍부터 인적자원의 질적 고도화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올려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정책 개발과 집중적인 투자로 직업교육과 함께 국가 엘리트를 육성해 왔다.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매우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상호연계를 통하여 교육의 성과가 교육의 최종 목표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로 인구 430만의 소국 싱가포르는 미국 시사주간지 『News week』가 2006년 8월 13일 개방성·다양성·연구성을 기준으로 선정 발표한 100대 글로벌대학 반열에 싱가포르국립대학교(36위)와 난양기술대학교(71위) 등 두 대학을 올려놓고 있다. 싱가포르의 각급 대학들은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해외 두뇌를 최대한 활용할 목적으로 일찍부터 유능한 외국인 교수를 대거 채용해 왔다. 지난 1990년 초부터는 세계 일류급 외국대학과의 전략적 제휴나 다양한 형태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교육개혁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싱가포르국립대학교는 이미 영연방 국가 내의 최고 수준인 옥스퍼드대학교나 캠브리지대학교 또는 호주국립대학교와 동급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2006년 현재 싱가포르국립대학교·난양기술대학교·국립교육원·싱가포

르경영대학교·싱가포르경영원 등 5개의 대학 교육기관이 있다.

싱가포르국립대학교(SNU: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는 1823년 싱가포르를 건설한 스탬퍼드 래플즈(Stamford Raffles)가 세운 교육기관의 후신이다. 국립종합대학인 SNU는 2003년 9월 현재 학부에 23,000여 명과 석사와 박사과정에 9,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타 대학도 비슷하지만, 특히 SNU의 단과대학에는 단 한 명의 정교수(professor)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대학의 정교수는 학문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정부의 장관급 경력과 국영기업체의 임원급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 각 단과대학에는 7~8명 정도의 부교수(associate professor)가 있고 그 아래는 모두 강의전담 교수(lecturer)로 구성되어 있다.

난양기술대학교(NTU: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는 1955년 동남아 최초로 중국어를 수업 언어로 하는 난양대학(Nanyang University)으로 출발하였고, 1981년에 이르러서 정부의 막강한 재정지원 하에 싱가포르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배출하는 실용학문기관으로 탈바꿈하였다. 정부시책이 큰 성과를 얻으면서 대학의 규모와 학문 분야의 다양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1991년 오늘날의 난양기술대학교로 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 대학은 2001년 현재 15,000여 명의 학부생과 5,500여 명의 석박사과정생이 재학하고 있다. 세계 굴지의 이공계 대학들과 긴밀한 학문적 연계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립교육원(NI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은 NTU의 산하기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초등·중등·고등학교 교사 양

성기관이자 현직 교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과 내용 연수기관이다. NIE는 GCE A level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의 학사학위 취득 과정과 GCE A level 합격자와 폴리테크닉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2년제 교육디플로마 과정이 있다. 또한 대학 수료자를 대상으로 초등 및 중등교원 양성을 위한 1년간의 교육디플로마 과정도 개설하고 있다.

싱가포르 교육정책의 밑동인 NIE는 교사 양성과 연수뿐만 아니라 일선 교사들의 지속적인 지식 향상과 상급자격 획득을 위해서 인문학·교육학 및 제반 과학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원 과정도 병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90년대 10년간 초·중등교사 중 대학원 졸업자가 31%에서 53%로 증가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싱가포르 정부의 대대적인 교육예산 확충으로 같은 기간 내에 교사와 학생의 비율도 초등학교는 1:26에서 1:25로, 중등학교는 1:22에서 1:19로 줄었다. 또한 1999년부터는 모든 교육시설의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01년까지 약 60%가 개선되었고, 지난 2005년까지 100%가 완료되었다. NIE는 또한 정부의 장기적이고 대대적인 예산지원으로 초등·중등·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각종 교재를 심의 제작하여 배포하며, 이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막강한 권한의 상설 심의기구를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경영대학교(SMU: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는 2000년 1월 싱가포르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개교한 사립대학으로 경영학·회계학·경제학·정보시스템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세계적인 대학 및 연구기관과 제휴를 통하여 세계 일류의 비즈니스맨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례로

미국 펜실바니아대학교의 와튼 스쿨(the 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이 SMU의 개교 이래 이곳에 분교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약 4,700명의 재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이 대학은 2007년 8월 법학 분야를 신설하고 재학생 규모를 석·박사과정생을 포함하여 최대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 캠퍼스로 이전하였다.

2005년 개교한 싱가포르경영원(UniSIM: Singapore Institute of Management University)은 SMU 졸업생들의 폭발적인 인기와 사회적 수요에 따라 이를 모방하여 만든 싱가포르 최초의 완전한 사립대학이다. 이 대학은 현재 6,500명의 재학생을 가지고 있으나, 향후 5년 이내에 20,000명 수준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연구 분야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방대학 성격으로 출발한 이 대학은 기존의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재교육을 통하여 직업인으로서의 직능교육과 사회인으로서의 교양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학위과정 이외에도 단기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 수여하는 디플로마 과정 특정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각종 이수증서를 수교하는 과정도 개설하고 있다. UniSIM의 교과과정은 현재 사회과학 분야·경영 및 무역 분야·인문학 분야·기술 및 자연과학 분야 등 네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2003년 8월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를 국제교육거점(Global School House)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세계 굴지의 대학교육기관들을 싱가포르로 유치하고, 한국·중국·일본·인도·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의 해외 유학생들을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이들의 계산에 의하면, 2025년 700만 명

에 달하는 해외 유학생 중 아시아계의 비율이 70%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싱가포르에는 와튼 스쿨 이외에도 MIT공과대학교·존스홉킨스대학교·뮌헨공과대학교를 포함하여 10여 개의 세계적인 대학들이 분교를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교육기관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부 산하의 관광위원회(STB)는 이미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교육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홍보전략 구축에 착수하여 '싱가포르 교육(Singapore Education)'이라는 홍보 브랜드를 내놓고 중국·인도·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Ⅶ. 국가경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싱가포르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촉망받는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해외 유학에 내보내고 있다. 정부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리관유 재단(Lee Kuan Yew Foundation)이나 고켄체 재단(Goh Keng Swee Foundation)이 해외로 향한 우수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학업 성적과 봉사활동 등을 기준으로 매년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을 기준으로 5명 내지 10명 미만의 대통령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이들이 주요 수혜 대상자들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소정의 절차를 거친 명문대 출신의 명문가의 자녀들도 세계와 겨루며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차세대 예비지도자들로 범정부 차원에서 육성한다. 이들이 원하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부와 재단이 공동으로 지원하고, 이들에게 국가의 장래를 위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금의환향하는 것은 아니다. 일

부는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도중에 탈락하는데, 국가에 실망을 안긴 이들은 자살하기도 하고 혹은 가족들과 함께 해외 이민 길에 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 재단을 두드리는 젊은이는 해마다 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최고 엘리트 계층은 공무원 사회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공무원 임용시험 제도가 없다. 인재 양성을 위한 정교한 교육제도를 통해서 유능한 공무원 후보자들을 일찍부터 발굴하고 장학금을 지급해서 육성한다. 국가관과 적성 및 능력을 전 교육과정을 통해서 거둬들여 검증받는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각급 학교 교사들의 추천서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골간을 이룰 공무원 후보자들은 국가공무원의 장기수급 계획에 따라 해당 분야의 교육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특권계층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특권을 남용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는 철저한 사전 교육도 병행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교육은 국가경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100대 글로벌대학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거꾸로 매년 7조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20만 명의 유학생과 또 다른 20만 명 수준의 해외 연수생을 내보내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9만 명에 육박하는 유학생을 미국에 보내서 인도·중국·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유학대국이 되었다. 국가를 대신하여 국제경쟁력을 찾아 나선 학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서울을 방문했던 시춘평(施春風)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총장이 ‘대학 운영이 간섭받고 제약받으면 세계 무대에서 우수 대학들과 경쟁하기 힘들다’는 고언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SNU와 NTU 등 두 글로벌대학이 2006년 7월 법인화를 단행하여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승윤**

양승윤

University of Gadjah Mada(인도네시아)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수여하였고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동남아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원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인도네시아 역사』, 『동남아의 이슬람』, 『동남아-중국관계론』, 『바다의 실크로드』 등이 있다.